

##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 윤동주 시 영역을 중심으로

김 효 중  
(대구가톨릭대)

###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져서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알리려는 작업<sup>1)</sup>이 확대

1) 하버드대학의 맥캔(David McCann) 교수는 한국 현대시의 영역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을 직접 편집하고 번역에 참여하였다. 이 번역시집에 수록된 시인(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시편의 수)을 제시해 보면, 주요한(4), 김소월(9), 이상화(1), 한용운(12), 이육사(5), 임화(3), 정지용(8), 김영랑(6), 이상(13), 노천명(7), 백석(5), 윤동주(8), 서정주(18), 박목월(7), 조지훈(8), 박두진(5), 김수용(9), 박인환(5), 김춘수(6), 구상(3), 홍운숙(3), 김남조(4), 박재삼(9), 신경림(10), 고은(10), 황동규(8), 신동엽(1), 정현중(5), 김지하(7), 강은교(6), 임영조(5), 김승희(5), 김혜순(7), 황지우(5), 박노해(3) 등이다. 이 번역시집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현대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시인들을 비롯하여 이 시대의 현역시인으로 주목받는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서 우리 문학의 특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적의 번역이 무엇인가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번역비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번역비평의 궁극적인 목적은 1) 번역수준을 증진시키고, 2) 번역가에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주며, 3)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번역방법을 알려주고, 4) 탁월한 작가와 번역가의 작품 해석을 도와주며, 5)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의미론적, 문법적 차이에 관한 비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다(Newmark 181).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문체를 원전에 충실히 번역하여 전달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목표는 언어의 구조적 차이, 문체론적 특성 등 각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차이성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번역자가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터이다.

그런데, 오늘날 번역현황을 보면, 대체로 뜻이나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번역이 너무 많고 원문과 거리가 있다거나 낱말 혹은 문법상의 오역, 역자 임의의 침식 등 번역이론상 허용 범위 밖의 오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의 비논리성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은 물론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오역이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오역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은 번역의 적합성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필자의 관심은 번역자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였는가에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번역이론과 연관된다.

언어와 문화 및 인간의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훔볼트(Humboldt)가 사상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번역과 관련하여 언어학적·문학적·문화적 요인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루벡(1976)에서 개최된 번역학자 대회에 서였는데, 여기서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 *Literature and Translation*(H. Göhring)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문화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므로 언어라는 표현형식 즉 텍스트)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

질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형식으로 바꾸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행위이다. 1980년대 초부터 번역학자들은 기존의 언어학적 번역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문화번역이론을 주장하면서 문화의 중개자로서 번역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sup>3)</sup>

시 번역은 시가 지닌 특이성과 언어의 배타성과 시인만의 고유한 정서 표출에서 드러나는 미묘함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번역가능성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한편,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시 번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왔으며 성공적인 시 번역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번역자는 시인 못지않게 영감과 재능과 작품과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을 때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sup>4)</sup>

본고는 문학작품 번역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문맥, 그 가운데서 역사인식의 문제에 관해서 운동주(1918~1945)의 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번역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가독성을 염두에 두어 필요한 경우 작품이 씌어진 배경이나 역사적 문맥 등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 2) 구조주의언어학에서 발전된 텍스트언어학은 그 자체에 내용문법, 문체론, 의존문법, 기능문법과 기호학의 연구방법을 통합함으로써 화용론적 요인을 수용하여 번역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제적 연구의 모델이 되었다. P. Hartmann(1999)에 의하면, 텍스트는 본래의 언어기호이며 언어는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기능한다. 체계언어학에서 사용된 언어단위(문장)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의의도 지니지 않는다.
- 3) 고대로부터 1970년대까지 번역은 언어 중심이었으며 문화는 구체적인 경우에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으로 취급되었다. 라이프찌히(Leipzig)학파는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번역과정에 엄격한 미시언어학적 방법을 적용했다.
- 4) 이 점과 관련하여 T. S. Eliot이 언급한 다음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Translation is valuable by a double power of fertilizing a literature by importing new elements which may be assimilated, and by restoring the essentials which have been forgotten in traditional literary method. There occurs, in the process, a happy fus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original and the mind of the translator: the result is not exoticism but rejuvenation.” (T. S. Eliot, “The Noh and the image,” *Egoist*, 1917)

## 2. 운동주 시의 영역과 문화적 문맥

### 2.1. 예비적 고찰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운동주 시의 영역작품은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McCann)<sup>5)</sup>에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번역비평은 번역자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주 시의 번역자 맥캔은 일단 번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과 언어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운동주의 시에 대해서는 훗날 관심을 갖게 되었겠지만, 그가 처음 한국시를 접하게 된 배경은 위의 번역시집의 서문에서 확인된다.

그가 김소월을 읽기 시작한 것은 안동농업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한 이듬해부터였으며 김소월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마다 학교 선생님,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가정의 식구들, 대구와 서울에 오가면서 타고 다녔던 기차 혹은 버스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김소월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월의 시를 암송하고 있고 어휘는 물론 어구까지 그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술회한다.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달래꽃Azaleas」을 인용하는 등 한국인은 김소월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다만 단 한 사람만 김소월 시를 인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인중 몇 명이 과연 푸로스트(Frost)의 시나 디킨슨(Dickenson)의

5) 이 시집의 출간 배경은 편집자인 맥캔의 편집노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서울대 권영민 교수와 지금은 고인이 된 하와이대 마셜 필(Marshall R. Phil) 교수가 근·현대 한국문학 전공자 및 번역가들을 모아 국제적인 팀을 만들고 대표작품군을 선정, 번역하여 꾸준히 확실한 형태로 출간하였다. 그 첫 번째 결과로서 첫 대회가 바로 1994년 가을 서울대학교에서 거행되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계획 전체가 계획되고 다양한 작업멤버가 구성되어 회합을 갖고 장르, 작가, 작품 등 기초적인 윤곽이 정착되었다. 그 사이 학자로서, 천부적인 번역가로서 호평 받는 작품을 썼던 마셜 필이 작고(1995)하였다. 이 시집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시 혹은 비숍(Bishop)의 시를 암송할 수 있나 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맥캔은 운동주 시를 번역하면서 번역시집의 첫머리(D. McCann 88ff)에서 운동주에 관하여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운동주의 출생, 학력, 죽음과 관련된 자전적 편력, 시세계 등이며, 역자는 자신이 파악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문맥에 따라 서술하고 이를 번역과정에서 참고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번역 독자의 가독성을 배려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 2.2. 시 번역과 문화적 문맥

본고는 번역시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다음의 「자화상」, 「서시」, 「십자가」, 「또 다른 고향」, 「쉽게 쓰여진 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 2.2.1.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6) 이 작품들의 원문은 권영민(461~473)의 것을 텍스트로 삼았다.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Self-portrait*

Below the mountain  
beside a field  
alone I look into a lone well.

In the well, moons glow  
where clouds flow down opened skies  
before pale blue winds,  
and there is autumn.

And a young man.

Somehow despising  
that young man  
I turn away.

Turn away, reflect,  
perhaps begin to pity that young man.

Returned, looking in as before  
is a young man.

Again somehow despising  
that young man  
I turn away.

Turn away, reflect,  
perhaps begin to remember...

In a well, moons glow  
where clouds flow down opened skies

before pale blue winds.  
Autumn is there,  
and like a pale memory,  
a young man.

자기응시와 내면적 성찰은 운동주의 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자신을 달, 구름, 하늘과 바람으로 객체화한 「자화상」에서 운동주는 그의 시의 본령에 이르게 된다. 이 시에서 우물과 그 우물 속의 사나이는 나르시시즘의 발상법과 유사하다. 그 우물 속에 비쳐진 달과 구름, 하늘과 바람, 이들의 조화를 깨뜨리는 한 사나이, 이는 시적 자아로서 운동주 자신이기도 하다. 시인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다 다시 생각하니 가엾어지고 그리워진다고 하면서 우물로 몇 번이나 반복하여 돌아다본다. 따라서 이 시에서 “turn away”가 4회 연속하여 되풀이되는 것은 이 시의 주제와 직결된다.

우물 속에 비쳐진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는 사나이, 그는 분명 추억처럼 서 있는 시인이다. 자전적 속성을 띠는 이 시의 경지는 “관조의 경지와 고독을 고통으로 느끼며 보다 높은 윤리적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김우창(254)의 언급처럼 보다 내면화한 깊이에 있다. 결국 이 시는 우물 속의 자연과 추억처럼 서 있는 사나이 곧 시적 자아와의 갈등과 부조화에서 느끼는 비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미단락으로 총 6연인 이 시의 영역은 형식상 10연으로 되어 있으나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우선 1연을 보면, 크게 의미상 세 부분 즉 “산모퉁이를 돌아/논가 외딴 우물을/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Below the mountain/beside a field/alone I look into a lone well.)로 나누어 번역한 점에서 확인된다. 문제는 “산모퉁이를 돌아”를 “Below the mountain”으로 번역한 점이다. ‘산모퉁이’의 뜻은 “the corner of a mountain foot”(Korean English Dictionary 1156)인데, 시 번역에서 시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원뜻과는 다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경우는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beside a field”의 “beside”와의 조응을 통한 두운을 살리기

위하여 역자가 의도적으로 택한 번역방법으로 볼 수 있다.

2연 1행을 “In the well, moons glow”로 번역한 것에 주목해 보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달을 복수로 번역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것은 하늘에 떠있는 달과 우물에 비친 달을 복수 개념으로 보고자 한 역자의 상상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연의 1행을 독립시켜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를 “and a young ma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사나이”를 “a young man”으로 오역한 것<sup>7)</sup>은 사전적 의미대로 “a man”(Korean English Dictionary 1123)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문맥상 굳이 “a young man”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둘째, 번역자는 원문과 달리 “a young man”을 독립된 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문맥상 이는 긴요한 사항이 아니며 다만 이 시의 주체가 사나이 곧 시적 화자이므로 이를 강조하고자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2.2.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Foreword

Wishing not to have

---

7) 이하 번역시에서 5회 연속 반복되는 “a young man”은 같은 이유에서 “a man”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so much as a speck of shame  
 toward heaven until the day I die,  
 I suffered, even when the wind stirred the leaves.  
 With my heart singing to the stars,  
 I shall love all things that are dying.  
 And I must walk the road  
 That has been given to me.

Tonight, again, the stars are  
 brushed by the wind.

윤동주의 자기응시와 내면의 성찰은 부끄러움과 뉘우침, 어둠과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즉자와 대자, 곧 시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어둠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식민지하의 한 지식인으로서 고뇌를 노래한 작품이 곧 이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그의 윤리적 내면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시인은 먼저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두고 굳게 다짐한다. 그러나,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감성의 소유자인 그에게 민족적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다. 그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하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한 치의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없는 삶을 영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훼손하여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그러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변해서는 안 될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음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순진무구한 경지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마음 자세”(김용직 627)가 나타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1연이고 둘째 부분은 1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2연이다. 번역을 보면, 첫 부분은 비교적 원시와 같이 8행을 좇고 있고 2행에서 서술부가 생략된 것을 적절한 어휘 ‘wishing’을 첨가함으로써 원시에서의 의미가 무리 없이 전달되었다. 사실상 이

시의 첫 부분은 다시 두 구절로 나뉘거니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소망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그것이다. 번역에서 이것을 ‘wishing’과 ‘singing’이 이끄는 절로 자연스럽게 옮겨놓았다.

2연에서 원시의 1행을 2행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눈에 띄고 “오늘밤에도”를 “Tonight, again”으로 번역하였는데, 일제 탄압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상징하는 데는 반복의 의미를 가진 “again”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이것은 이 시를 단순히 서정시로서가 아니고 저항시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운동주는 이육사와 함께 항일운동의 최선봉에 선 시인으로서 온몸으로 저항을 실천한 시인이다. 그러므로, 이 시를 저항시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sup>8)</sup> 따라서 2연의 ‘바람’은 일제 치하에서의 온갖 잔악한 탄압을, ‘별’은 우리 민족의 ‘이상과 염원’을 상징한다. 즉 2연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탄압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견상으로는 한 편의 서정시이나 역사적 문맥을 고려해 볼 때는 저항시이다.

### 2.2.3. 「십자가」

쫓아오든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수 있을까요.

8) 우리 문학사에서 “운동주가 차지하는 최고의 의미는 그가 항일저항시인이라는 점”(김용직 628)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학계에서 이 시를 항일시로 해석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면적이며 완전한 말소를 시도하여 우리 시인의 표현매체인 모국어(한글)를 빼앗아 갔고 그 대신 그들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작품을 쓰도록 강요했다. 이에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우리 문학은 그 명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암흑기의 항일저항은 우리 시인과 작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운동주는 일제의 연행, 구금, 고문, 투옥 후에는 생체 실험의 희생물로 순국하였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든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The Cross*

The sun was following me  
but it is now caught on the cross  
on top of the church.

How can I get up  
that high on the steeple?

No sound comes from the bell:  
I might as well whistle and hang around.

If I were permitted my own cross,  
like the man who suffered,  
the blessed Jesus Christ,

I would hang my head  
and quietly bleed  
blood that would blossom like a flower  
under a darkening sky.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희생정신인데, 이것은 그의 자전적 편력으로

보아 민족의식과 하느님을 경배하는 기독교의식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번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연에서 쓰인 ‘십자가’와 4연에서 쓰인 ‘십자가’에 대한 번역과 3연에서 행을 독립시켜 번역한 ‘처럼’이다. 1연의 ‘십자가’는 교회당 꼭대기에 걸린, 종교적 상징 혹은 보편적 상징으로서 ‘The cross’로, 4연의 ‘십자가’는 시인 개인이 지고 가야 할 개인적 상징으로서 원시에는 없지만 ‘my own’을 첨가하여 ‘my own cross’로 구분하여 번역되었다. 이것은 번역자가 이 시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증거이다.

2연 “How can I get up/that high on the steeple?”의 “get up”은 “come close to”의 의미로 어떻게 감히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간절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다음, 3연에서 행을 독립시켜 번역한 ‘처럼’을 살펴보려면 십자가와 관련지어 설명해야 한다. 이 시에서 십자가로 표상되는 자기희생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죽음의 자기희생에 수렴되는 것이면서도 그와는 다소 다른 각도로 노래하고자 한 시인의 의도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죽음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죽음인 이상 그것이 비록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값진 죽음이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견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며 죽어가는 죽음, 즉 괴롭고 아픈 죽음이 아닌 아름다운 죽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 “I would hang my head/and quietly bleed/blood that would blossom like a flower/under a darkening sky”는 원시의 뉘앙스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적 화자의 죽음은 빼앗긴 나라, 핍박받는 겨레에 대한 준열한 죽음이며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다른 순교자의 죽음에 비견될 정도의 죽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처럼’은 앞뒤 문맥에 동시에 걸린다고 할 수 있어 주목되는 어휘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 시의 백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운동주의 정신세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번역에서는 “처럼”을 독립시켜 번역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원시에서 이 어휘가 지닌 의미의 비중을 고려할 때 번역등가에 해당하는 “like”를 독립시킬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 2.2.4.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었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Yet Another Home*

The night I returned home  
my white bones followed  
and lay down in the same room.

The dark room gave out  
on the universe  
and the wind blew

like a voice from heaven.

Peering down at my white bones,  
so finely worn away and  
pulverized by the wind amid the darkness,  
I wonder who it is whose tears are being shed.  
Am I crying?  
Or is it my white bones?  
Perhaps my beautiful soul?

A steadfast dog howls  
in the darkness through the night.

The dog howling in the darkness  
must be the one that in driving me away.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I who am being driven away!  
Let me go to Yet Another Beautiful Home,  
stealing away from my white bones!

이 시에서 ‘어둠’과 ‘아침’의 대립구조는 당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상징한다. 윤동주의 시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바탕으로 한 민족시로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눈물짓는 나’와 ‘백골인 나’와 ‘아름다운 혼인 나’를 선명하게 분리시키고 있다. 이 시에 대하여 “한국 근대시에서 자아분화의 내면적 성찰에서 이보다 깊이 추구된 것은 거의 예를 찾을 수 없다”(김윤식 299)고 언급한 내용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자기의 고향은 백골, 곧 시신과 만나는 ‘어둔 방’으로 세계의 자아가 만나는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어둠을 짓는 개”와 “나를 쫓는 개”는 나를 또 다른 고향으로 내몬다. 그가 백골도 모르게 찾아갈 또 다른 고향은 그의 아름다운 혼이 깃들 이상세계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고향 즉 이상세계로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제목을 “Yet

Another home”으로 번역한 것은 문맥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다.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The dog howling in the darkness”로, “나를 쫓는 개”는 “the one that in driving me away”로 번역한 것은 문맥에 부합되며 후자의 “the one”은 곧 “The dog”를 나타낸다. 그리고 “night, the dark room”은 일제치하에서의 암울했던 당시의 배경을 선명히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행과 연의 번역을 보면, 의미단락에 맞추어져 4, 5연을 제외한 나머지 연들의 행수가 원시보다 1, 2행 길어진 경향이 있다. 2연 4행의 “like a voice from heaven.”에서 “heaven”은 “하늘”을 문맥에 맞게 번역한 어휘로서 사물로서의 “sky”가 아닌 “천국”의 의미를 띠고 있다.

3연의 번역은 전반적으로 원시의 의미에 맞게 번역되었다. 문제는 1행의 “풍화작용하는”을 “pulverized by the wind”로 번역한 점인데, “pulverized” 대신 “weathered”로 번역했어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추측컨대, 번역자는 첫 행의 “Peering”에 조응하는 두운을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 어휘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6연 청유형 “가자”를 “Let's go”로 하지 않고 “Let me go”로 한 것은 역사적 상황을 간과하고 번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텍스트가 쓰여진 상황은 극심한 일제의 탄압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우리 민족은 어떤 행동도 자유 의지로 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때이기 때문이다.

### 2.2.5. 「쉽게 씌어진 시」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A Poem That Came Easily*

The night rain whispers outside the window  
of my six-mat room, in an alien country.

The poet has a sad vocation, I know;  
should I write another line of poetry?

Having received my tuition from home in an envelope  
soaked with the smell of sweat and love,

I tuck my college notebook under my arm  
and go off to listen to the lecture of an old professor.

Looking back, I see that I have lost my childhood friends:  
one and two at a time-all of them.

What was it that I was hoping for,  
and why am I simply sinking to the bottom alone?

Life is meant to be difficult:  
it is too bad  
that a poem comes so easily to me.

My six-mat room in an alien country:  
the night rain whispers outside the window.

I light the lamp to drive out the darkness a little,  
and I, in my last moments, wait for the morning,  
which will come like a new era.

Extending a small hand to myself,  
I offer myself the very first handshake,  
tears, and condolences.

이 시는 윤동주의 최후의 유작으로 알려진 시이다.<sup>9)</sup> 창 밖에 밤비가 내리는 유학지 일본의 땅, 쓸쓸한 하숙방에서 고독감과 상실감을 역사인식의 정신적 높이로 승화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이국 체험이 단순한 이국풍물의 정조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자기성찰과 시대인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개인적 체험과 정서가 보편적 체험과 정서에 접합되는 데서 윤동주 시의 탁월성이 찾아진다면 이 시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뿌리 뽑힌 자로서 그의 실향의식은 단순한 노스탈자의 개체적 향수에서 역사와 민족의 상실이라는 집단적 향수로 전이된

9) 그는 1941년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1942년 동경에 있는 입교대 영문과에 적을 둔 바 있는데, 이 학교에 재학하던 1학기말에 이 시가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해 가을 미선계통의 동지시대학으로 적을 옮겼고 다음해(1944)에 일경에 체포되어 북강형무소에 투옥되고 이듬해 2월에 사망하였으니 이 시는 윤동주의 개인적 생애가 어떤 상황으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창작된 것이다.

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5연)에서 보이는 상실감과 향수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육첩방”(8연)에서 조국과 민족의 생존권 회생을 희원하는 비장한 자기성찰과 시대의지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개체적 자아에서 역사적 자아로의 변모는 곧 인식발전의 거리를 의미하고 그러한 변모의 정점에 서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이다.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부끄러운 일”(7연)에서 삶의 준엄성과 역사의 엄숙성 앞에서 무기력했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시인의 임무와 사명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을 보여준다. 비록 슬픈 천명을 타고난 시인이지만, “시대처럼 올라침을 최후의 나”로 서기를 다짐한다. 그러나, 그가 눈물과 위안으로 잡게 된 손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쉽게 씌어진 시가 아니라 시대의 암울과 역사의 어둠을 내몰고 새로운 시대를 기약하는 저항과 위안의 시가 되고 있다.<sup>10)</sup>

번역 시의 형태는 원시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연 2행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가 여섯 장 깔린 것”(김재홍 840)의 뜻이므로 “six-mat room”으로, “남의 나라”는 “in an alien country”로 번역하고 있어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 문맥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연 “The poet has a sad vocation, I know;”는 “vocation”이 지닌 사전적 의미 즉 “천직, 사명”(한국영어영문학회 3274)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원시에 없는 문장부호 “:”를 역자 임의로 삽입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이 지닌 어법상 기능은 “comma(,)와 period(.)와의 중간”(한국영어영문학회 2660)인 바, 다음에 이어지는 2행 “should I write another line of poetry?”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장부호의 활용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3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야말로 한국의 교육문화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대목인데, “Having received my tuition from home in an envelope/soaked with

10) 번역자(McCann 88)는 번역도입 부분에서 윤희동의 생애 및 문학적 편력을 소개하면서

the smell of sweat and love”로 원시의 의미에 충실히 직역하고 있다. 그러나, 원시의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과 같은 한국적 정서가 풍겨나는 구절이 역사에서 과연 충분히 드러났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역자는 주석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한국의 교육적 풍토를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연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를 “looking back, I see that I have lost my childhood friends: one and two at a time-all of them”으로 번역한 것은 원시에 충실한 것이며 이 문장에서도 역자 임의로 문장 부호 “:”를 삽입하였는데, 문맥상 2연에서와 같은 어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보인다.

6연 “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를 “What was it that I was hoping for/and why am I simply sinking to the bottom alone?”으로 번역한 것은 문맥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7연의 번역에 있다. 즉 3행의 “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를 “it is too bad/that a poem comes so easily to me”에서 “too bad”는 앞의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주제적 특성상 “shameful”로 대체해야 한다. 즉 “it is shameful/that a poem comes so easily to me”로 해야 이 시의 문맥에 부합된다.

8연은 1, 2행의 위치만 서로 바꾼 1연의 반복이다. 시인은 반복법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의 생존권 회생을 희원하는 비장한 자기성찰과 시대의지로 변모되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9연과 10연은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부분으로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체적으로 9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I light the lamp to drive out the darkness a little,/and I, in my last moments, wait for the morning,/which will come like a new era”로 번역한 것은 이러한 무드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연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Extending a small hand to myself/I offer myself the very first handshake/tears, and condolences”로 번역한 것은 9연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다. 9연의 “the darkness”와 “the morning”의 대조와 “my last moments”, 10연에서 보여주는 “myself the very first handshake”가 부여하는 역사적 의미를 독자들

은 충분히 감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필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의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번역의 활성화를 중시하며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비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적의 번역을 위해서 역자가 문화적 문맥 특히 역사적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히 운동주 시의 영역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운동주 시의 영역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적절하게 번역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컨대, 일제 치하라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번역이 나왔거나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원시와는 거리가 있는 미흡한 번역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텍스트에 연관된 문화적 문맥, 특히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서나 문화와 엄청난 거리감을 조성하고 분위기와 뉘앙스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외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전이시켜 번역함으로써 자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원시의 분위기나 뉘앙스, 의미 등을 놓치게 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 번역자의 경우는 미국에서 한국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시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번역 대상 작품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문화번역의 난해도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최적의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그리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영민. 1994. 『한국현대문학대계』. 민음사.
- 김대행. 1976.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 \_\_\_\_\_. 1981.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 김용직. 1996. 『한국현대시사』. 한국문연.
- 김우창. 1981.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 운동주의 시」(이건청 편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운동주 평전』. 문학세계사.
- 김윤식. 1981. 「한국근대시와 운동주」.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건청 편저). 문학세계사.
- 김재홍. 1986. 『한국 현대 시인 연구』. 일지사.
- \_\_\_\_\_. 1997. 『시어사전』. 고려대 출판부.
- 김학동. 1998.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시』. 새문사.
- 오세영. 2001.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 출판부.
- 오하근. 1995. 『정본 김소월전집』. 집문당.
- 정한모. 1981. 『한국현대시의 정수』. 서울대 출판부.
-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영한대사전』. 민중서관.
- Bassnett S. & Lefevere. A. 1998. *Constructing Cultures.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 Derrida, J. 1986. *Positionen, Gesprache mit Henre Ronse, Julia Kristeva, Jean-Louis Houdebine, Guy Skarpetta*. Hrsg. v. Peter Engelmann. Edition assagen 8. Graz/Wien, Böhlau.
- Holmes. J. et al. 1978. *Literature und Translation*. Acco, Leuven.
- Koller. W. 1997.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5 Auflage. Quelle & Meyer(=UTB 819). Heidelberg.
- Korean English Dictionary*. 1996. Sisa Elite.
- McCann, David. 2004.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wmark. 1980. *Approches to Translation*. Pergamon Press. Oxford.

[Abstract]

**The Literary Translation and Cultural Context:**  
With Special Reference to Dongju Yun's Poetry

Kim, Hyo 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ranslation is an act of creativity and artistic creation. It is not a simple transfer of linguistic signs but means more than that. Linguistic signs contain spirits, world-view, and cultural traits of the people who use the language. Translators bring these signs into the texts of their own language in a changed form to fit in the culture of the target language. Newly created texts of the target language are a complicated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communication that corresponds to socio-cultural environment. It is a matter of translators' personal decision based on their world-view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His detailed efforts to keep the original intact and to translate as faithful as possible are to be seen throughout his translation works. Some of them not only satisfy modern standards but also exceed contemporary versions of translation.

His achievements as translator deserve fair and proper evaluation and need to be studied more deeply. The poems of Dongju Yun that were analysed in this article have been loved by many Koreans with their poetic beauty. Readers are fre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poem according to their own views and therefore, it gives a room for varied and different translations from translator to translator.

The translator has much affection to Dongju Yun and studied Yun's

poems very hard which qualifies him as a competent translator. He integrated contents and forms harmoniously in his translations. Many devices such as the shift of signs in the sentence that are used in this translation are only for the rea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However some English translations do not perfectly replace their Korean originals under his considerations for non-Korean readers. Sometimes, though, this leads to unsatisfying result to foreign readers, since while doing so, the translations may lose their atmosphere and nuance of the originals.

The translator himself is a responsible figure in America for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has knowledge about Dongju Yun. His translation works show the difficulties of translating Korean literary works.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owards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 Literature.

▶ Key Words: culture and society, communication, culture, A Poem that Came Easily, Yet Another Home, The Cross, Foreword, Self-portrait

김효중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glarakim7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이론 및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계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